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알립니다



‘스포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공모

스포츠 공헌 단체, 지자체, 동호회 등 시상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10월 20일 마감



스포츠동아는 ‘2020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KSA·Korea Sports Awards)’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우수 공헌자와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상은 ▲리더 ▲브랜드 ▲기업 ▲스포츠장비 및 시설 ▲동호회 ▲생활체육 ▲영스포츠 ▲전통체육 ▲기타 특별 분야에 걸쳐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스포츠 관련 ▲유공 체육인 ▲정책 공헌자 ▲스포츠진흥 기업 또는 개인 ▲지자체장 ▲생활스포츠 리더 ▲스포츠 용품사·브랜드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동호회 임직원 및 후원자 등입니다.

후보자는 ▲응모신청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마감: 2020년 10월 20일(화)
 - 접수: sol@donga.com
 - 시상식: 11월 11일 동아일보사 CC큐브
 - 문의: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기획팀 (02-361-1616)
- 주최: 스포츠동아 주관: 스포엑스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공격·수비 실수에도 홀로 빛난 류현진...값진 시즌 3승

“Ryu 덕분에 승리 이게 바로 에이스”

-몬토요 토론토 감독

마이애미전 6이닝 8K 1실점...연패 탈출 견인
물방망이에 주루·견제사 등 졸전 속 고군분투
체인지업 등 괴물투...평균자책점 2.72로 낮춰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코리안 몬스터’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맞이하는 익숙한 상황이었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은 3일(한국시간)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해 6이닝 5안타 2볼넷 8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에이스’의 역투를 앞세운 토론토가 2-1로 이겨 2연패에서 탈출했다.

이날 류현진은 과거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로 활약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팀원들의 주루사와 실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냈다.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회를 4타자만 상대하며 무난하게 넘긴 류현진은 2회 위기를 맞았다. 선두타자 브라이언 앤더슨에게 우전안타를 내줬는데, 높이 뜬공이 2루수 조나단 비야와 우익수 테오스카르 에르난데스 사이에 떨어졌다.

문제는 다음 상황이었다. 류현진은 후속타자 코리 디커슨을 2루수 쪽 내야땅볼로 유도했다. 충분히 병살로 연결할 수 있는 타구였지만, 2루수 비야가 2루 악송구 실책을 저지르면서 무사 1-2루 핀치가 찾아왔다.

실점 위기에 몰린 류현진은 특급 대처능력을 보이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루이스 브린슨을 내야땅볼로 잡은 뒤 계속된 1사 2·3루 위기서 호르헤 알파로와 재즈 치스홀름을 연속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류현진은 4회까지 순항했다. 체인지업, 커브, 커터 등 명품 변화구로 타자들의 헛스윙과 범타를 이끌었다. 5회 3연속 안타로 1실점했지만, 더 이상의 실점은 없

토론토 류현진 3일(한국시간) 마이애미전 구종 분석	
구종	투구수
포심패스트볼	26
투심패스트볼	12
컷패스트볼	22
체인지업	27
커브	12
합계	99

었다. 6회까지 99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굳건히 지켰다.

빈약한 수비지위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에게 팀 타선마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주루사에 견제사(2번)까지 겹치며 에이스의 어깨를 무겁게만 만들었다. 이날 경기에서 토론토 타선이 뽑아낸 점수는 2점에 불과했다.

토론토는 7회부터 필승조를 가동해 어렵게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줬다. AJ 폴~라파엘 돌리스~앤서니 베스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최종 2-1 승리를 완성했다. 류현진은 시즌 3승(1패)을 거뒀고, 평균자책점 역시 2.92에서 2.72로 낮췄다.

경기 후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오늘은 류현진 덕분에 이긴 경기”라고 총평했다. 이어 “동료들의 실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공을 던졌는데, 매우 뛰어났다”며 “그게 바로 에이스”라고 극찬했다.

류현진 역시 본헤드 플레이를 벌인 동료들을 감싸며 에이스다운 면모를 이어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수들이 일부러 아웃되려 한 게 아니다. 노력하다 상대팀 예측에 당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겼다.

▶ 관련기사 2면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 토론토 류현진이 3일(한국시간)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원정경기에서 6이닝 5안타 2볼넷 8삼진 1실점의 호투로 시즌 3승(1패)째를 따냈다. 통산 마이애미전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11의 강한 면모도 유지했다. 현재 투구하고 있는 류현진.

마이애미(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골프여왕서 ‘리치언니’로...예능계 종횡무진 누비는 박세리 전격 인터뷰 ▶ 12면

CJ CHEILJEDANG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